"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이며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 어린이학교 입학식이 4일(화)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입학식이 5일(수) 오전 11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미리내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일(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5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며,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 오늘 예배 후에 예배공동체 실행위원회 임시 모임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이어진 전도사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채영대 집사 · 장지영 권사 가정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9 호
2025년 3월 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몇 해 전 3.1절을 기하여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의자를 던져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받아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는 시점부터 출소 이틀 전 1920년 9월 28일 사망일까지 형무소 안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3.1운동 1주년을 맞아 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 갖은 고문과 구타로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열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짧은 장면이지만, 감독이 유관순 열사의 입을 빌려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달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상상의 장면이겠지만요.

죽음의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된 유관순 열사에게 감방 문에 작은 구멍으로 밥을 넣어주던 잡부가 딱한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 왜 그렇게 까지 하는 거요?" 이 질문에 열사가 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아, 그래 바로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럼, 누가 합니까?

이 말을 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보며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끄덕임을 남기고 유관순 열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숭고한 죽음입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말인 것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라는 이 마음이 일제 강점기 당시 많은 순국열사들이 가진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빼앗은 일제의 만행 앞에 누군가는 독립을 외치고 항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립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00년 전 순국열사들의 이 마음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섰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의가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안위가 너무나 중시되고, 개인의 취향이 지극히 존중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서로를 나누고 충돌하게 하며 대화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신앙을 자신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여 신앙을 버리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하며, 참된 것을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갖은 비난과 조롱이 있더라도 거짓된 것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운동 106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분연히 일어섰던 많은 순국열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라는 마음을 품어 봅니다.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

<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310 325 / 455
기도 : 이현숙 집사
성경 : 마태복음 5 : 1-48
제목 : 이 땅에서 사는 제자들의 삶

1. 복이 있는 사람 < 1-12>
   1) 복이 있는 사람들 (What)
   2) 제자는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Why)
   3)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자<요3:16> (How)

2. 세상의 소금과 빛<13-16>
   1)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What)
   2) 제자는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Why)
   3)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전10:31>(How)

3.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17-48>
   1)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What)
   2)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Why)
   3)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자.<벧전1:16>(How)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문상객들은 88세에 며칠만 아프고 돌아가셔서 복이 많은 분이라고 위로를 했다. 나는 마음이 갑갑했다. 사남매인 친구는 본인만 교회를 다니고 가족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에게 가끔은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는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는 했느냐, 물어보면 시큰둥했고 명확한 대답은 못 들은 것 같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난 참 안타까웠다.

몇 십 년 전 나는 전도훈련을 받았다.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전도현장에 나가 복음 제시를 하고 결신을 맺기도 했다. 훈련자가 복음제시를 하여 본을 보이고, 훈련생 2명은 기도로 돕다가 점차 복음 제시를 넘겨받는 방법이다. 훈련을 받고 보니 나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고, 담대함과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다. 난 누구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싶어 친분을 쌓는다. 그 다음에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들을 준비가 되도록 준비 기도를 한다.

요즈음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강사로 갔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다. 동영상으로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해준다. 고학년 아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개인 한 명에게만 이야기한다. 매우 조심스럽다.

한번은 3학년 200여 명과 예배를 드렸고, 설교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 차례가 되어 복음 제시를 했다.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아,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교회를 다녀서요? 그 대답을 듣고 보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인간의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 일어나 결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다. 그 다음날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고 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따뜻한사랑방 이윤순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16 : 8-11	인도자
*예배의 찬송	67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로마서 6 : 23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42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누가복음 9 : 28 - 36	설교자
성가대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움사랑방
설 교	"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45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10(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산 위에 오르심.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중에 온 몸이 환하게 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중에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서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산 아래의 상황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꾸지람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성공으로 자만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산 아래에서의 삶은 온갖 우상과 미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산 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이루어지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임진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달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꾸러기들과 날짜, 요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좋을지, 의자와 사물함 이름표로 쓸 사진은 언제 어떤 느낌으로 찍는 게 좋을지, 새내기들의 적응기간에 어떻게 도울지 등등을 의논합니다.

자료실과 교무실을 정리하며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책장, 만들기장, 장난감장을 깨끗이 닦고 뺄 것과 새로 넣을 것을 정합니다. 나무로 만든 평형대나 장들에 꾸러기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건 도움을 청해봅니다.

새로 사야할 것, 더 채워 놓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장을 봅니다.

자연예배당 냉온풍기를 청소합니다. 늘 흙범벅인 꾸러기차 안팎을 청소합니다. 화장실 슬리퍼를 확인하고 청소계획을 세웁니다.

3월 계획을 다시 꼼꼼히 점검합니다.

입학식날 자연예배당 안을 꾸밀 준비를 합니다.

꾸러기들은 방학이지만 새학기를 준비하며 일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꾸러기들이 가득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완연한 봄입니다. 바람이 차긴 하지만 낮엔 봄바람이 살랑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비 소식이 있는데 봄비가 내리고 나면 더 따뜻한 봄이 우리를 맞아주겠죠~^^

27일(목) 저녁에 1학년 신입생 안서윤 어린이네 집에 가정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간식을 차려 주셔서 맛나게 먹고, 서윤이의 방에 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하고, 칭찬도 해주며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6일(목)에는 이든이네 가정방문을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은 개학 준비로 바빴습니다. 도서관의 책장과 책들이 동그라미에 내려왔고, 동그라미를 예쁜 도서관으로 꾸몄답니다. 블라인드도 달고, 등도 예쁘게 달고, 예쁜 방석도 놓고, 바닥에 따뜻한 열선도 깔아주시고 덜컹거리던 문도 나집사님께서 깔끔하게 고쳐주셔서 더욱 아늑해 졌답니다. 아늑한 교실에서 책도 읽고 수업도 하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애써주신 사랑방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4일 화요일 개학을 하며 14시에 입학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1학년 친구들과 재학생들을 위해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은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45인승 버스를 꽉 채워 속초로 떠났습니다. 서로 눈치들이 오갔지만, 백담사를 둘러보며 금방 돌탑을 함께 쌓는 손길로 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차려 먹고, 볼링을 치며 하이파이브를 연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강풍이 몰아치는 바닷가로 떠나 해양박물관을 구경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기대하던 농구와 큰 공 던지기를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도중에 정태일 목사님 가정이 간식을 들고 방문하셔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웃음이 넘쳐났던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남학생들이 고대하던 축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이주안(패트릭) 선생님도 함께, 모두가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무승부로 끝난 경기를 뒤로 하고 저녁에는 많은 멋쟁이가 가장 감명 깊었다고 말한, 공동체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학년별로 춘천의 공기를 한껏 맛보고, 명작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 정신없이 빠져들었지요. 피드백까지 마친 멋쟁이들에겐 근육통과 피로가 가득했지만, 이전의 긴장은 한층 누그러지고 기쁨과 설렘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 같아서 기쁘고 뿌듯합니다. 여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나의 자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재의 수요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이 때, 일 년의 한 번은 사순절을 맞아 나를 추슬러 본다. 나의 삶의 자세, 나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는가?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잘 섬겼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저 없이 해 나갔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럽지만 나를 잘 지키며 나의 소신껏 살아 왔다고 자부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사순절은 좀 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디아코니아사랑방 장미숙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태일 목사
찬 송 : 410, 335
성 경 : 마태복음 2 : 1-12
말 씀 :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1)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
2) 메시야의 이상적인 통치를 전하다
3) 혼란한 시기에 좋은 지도자를 기도하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트럼프 대통령의 선한 지도력을 위해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국내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새학기를 맞는 공동체학교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간만에 따뜻한 날씨로 공동체 나무들은 봉우리를 맺으며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식구들도 봄을 맞아 곳곳을 보수하고 정리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입학식을 마치고 개강여행을 다녀온 멋쟁이와 새학기를 준비하는 꾸러기, 어린이 선생님들은 바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비와 눈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온다지만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